

경희대학교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 1학기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101자 ~ 1,200자 이내로 논술하십시오.
2. 제목은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4.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십시오.(교정 시에는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
5.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예: 감사합니다. 등), 원고지의 일정 분량 이상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문제]

다음 제시문 [A], [B], [C], [D]에는 그 주제와 내용 속에 사람의 행동과 심성에 대한 덕목이 나타나 있다. 각 글에서 하나씩 네 덕목을 찾아 제시하고, 이를 [A]-[B]-[C]-[D]의 순으로 연결·통합시켜 현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하여 논술하십시오.

【 제시문 】

[A]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B]

君子有九思하니 視思明하며 聽思聰하며
色思溫하며 貌思恭하며 言思忠하며 事思敬하며
疑思問하며 忿思難하며 見得思義니라.

[C]

In order to be happy a person must find the mean between two extremes. A courageous person is the mean between the extremes of cowardice and foolhardiness. A soldier who is a coward will not fight in a war even though they have more than enough resources to defeat the enemy quite easily, while the foolhardy soldier will fight in a war when they are very poorly equipped. Aristotle defined the mean as the perfect moderate course or position that avoids extremes: the happy medium. This definition needs some more help; it is the nature of things to be destroyed by defect and excess. As an example, in the case of strength and of health, both excessive and defective exercise destroys the strength, and similarly drink or food which is above or below a certain amount destroys the health, while what is proportionate produces, increases and preserves it. The same is true in the case of temperance and courage and the other virtues. For the man who flees from and fears everything and does not stand his ground against anything becomes a coward, and the man who fears nothing at all but goes to meet every danger becomes rash; and similarly the man who indulges in every pleasure and abstains from none becomes self-indulgent, while the man who shuns every pleasure becomes in a way insensible; temperance and courage, then, are destroyed by excess and defect, and preserved by the mean.

[D]

“이 별에 대해서 우리 양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장 드 밀랑’이 ‘삼인의 임금님’이나 ‘병아리 바구니’(스발성좌)와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 받았다고 합니다. ‘병아리 바구니’는 제일 급히 먼저 떠나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저 별을 보श्य, 하늘 꼭대기에 있잖아요.

‘삼인의 임금님’은 좀 더 낮게 지름길로 해서 ‘병아리 바구니’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저 게으름뱅이인 ‘장 드 밀랑’은 너무 늦게까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늦게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먼저 간 두 별을 멈추게 하려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삼인의 임금님’은 ‘장 드 밀랑의 지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여러 별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별은 우리들의 별인, 우리들 목동들이 양 떼를 몰고 나가는 새벽녘이나 데리고 돌아오는 저녁때에 우리들을 비춰 주는 ‘목동의 별’입니다. 우리들은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글론은 ‘피에르 드 프로방스’(토성)의 뒤를 쫓고, 그리고 칠 년째 마다 피에르와 결혼합니다.”

“어머나, 그럼 별님의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내가 별의 결혼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상쾌하고 부드러운 것이 나의 어깨에 가벼이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리본과 레이스와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곱게 누르면서 나에게 기대어 온 아가씨의 잠든 무거운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하늘의 별들이 햇빛으로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약간 두근거리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만을 나에게 안겨준, 이 청명한 밤의 신성한 보호를 받으며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는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한 별이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